

■ 제주도,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방역체계 가동

# “유증상자 등 여행 강행시 구상권 청구”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대상 확대  
입도객 37.5℃ 이상 발열자·의심증상 체류객 전원 검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행을 대비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트윈데믹’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을 대비한 전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도 지속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도민·체류 관광객 대상 방역관리 확대 및 진단검사 지원,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제주 입도객 대상 특별입도절차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도는 우선 도내 체류 중인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적극 지원 ▷12월 3일 수능 관련 교육청 특별방역 대책 범부처 지원 ▷트윈데믹 대비 전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지속 ▷정신병원·요양병원 포함 감염병 취약시설 대상 전수검사 포함 집중관리 등을 통해 강화된 방역 관리를 시행한다.

특히 도는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대상 확대, 발열 증상자 의무검사 행정조치 제발동을 주요골자로 하는 ‘특별입도절차 시즌4’를 24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검사 지

원 대상을 기존 해외방문이력자 및 37.5℃ 이상 발열 증상자에서 당일 입도과정에서 의심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희망하는 자까지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의심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다.

공·항만을 통한 입도객 가운데 유증상임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가 또 다시 발동된다.

검사 희망자는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 문진 후 검체 채취를 진행하면 된다. 판정 결과 대기 동안 자택 또는 예약 숙소에서 의무 격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로써 의심증상자는 입도과정에서

1차적으로, 추후 도내 선별의료기관에서 2차적으로 적극적인 검사 지원을 받게 되는 체계가 구축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음압구급차 7대를 통해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내 음압 병상(최대 191개)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9월 8일부터 진행 중인 트윈데믹 이전 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또한 도내 행정기관, 학교, 공사·공단, 일반기업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23일 기준, 제주도민 약 31만명이 접종을 받아 목표(80% 접종) 대비 접종률 58%를 나타내고 있다. 겨울철이 다가온 만큼 트윈데믹 차단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할 상황이다.

백금탁자 haru@ihalla.com



제주명품 옥돔 24일 강정 주민들이 갓 잡은 제주의 명품 옥돔을 손질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민·관합동 돌하르방팀 보이스피싱 예방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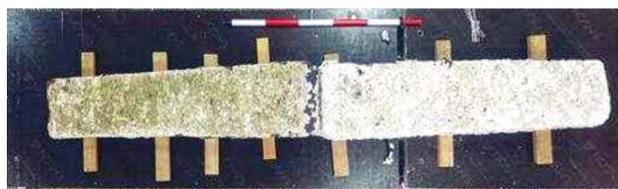
제주서부경찰서는 관내 62개 리 및 농민단체와 발족한 ‘돌하르방팀’ 운영 중간 점검 결과 전화금융 사기 건수 감소, 민원사항 해소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돌하르방팀’은 지난달 13일부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관내 62개 리 및 농민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구성됐으며, 민·관 합동으로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돌하르방팀 운영 결과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104건으로, 지난해 동기(140건)와 비교할 때 34.6% 감소했다. 실제 지난 19일 제주양돈농협 북도형지점에서 한 직원이 저금리 대출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을 상대로 ‘금융사기 예방 진단단’ 작성을 요구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아냈다.

이어 제주서부경찰서는 과속방지턱·반사경 등 교통시설 정비, 상습정체 구간 해소 등 신호체계 개선, 농번기 순찰활동 강화 등 총 83건의 민원 중 45건을 개선·조치했다.

문영근 서장은 “남은 32개 리 마을 방문을 지속하며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희기자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앞 바다에서 발굴된 길이 3.1m의 닻돌(사진 왼쪽)과 중국 동전.



사진=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공

## 신창리 바다서 中 무역선 대형 닻돌 발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송나라 동전·도자기 유물 확인  
“무게 586kg 국내 최대 규모... 동아시아 국제교류 활발”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앞 바다에서 중국 중세 무역선의 대형 닻돌과 송대 동전, 중국 도자기 등 수중유물이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국립제주박물관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신창리 해역 수중발굴조사에서 중국 동전 및 도자기와 함께 3.1m짜리 대형 닻돌 1점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창리 해역 수중유적은 중국 남송(1127~1279년)대 도자기가 다량 발견되고 있는 곳으로, 과거 중국 무역선이 난파되면서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발굴된 닻돌은 두 조각으로 쪼개

져 발견됐고 전체적으로 긴 마름모꼴로 중앙부가 두툼하고 양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다. 자연석의 일부만을 다듬어 사용한 우리나라 전통 닻돌과는 차이를 보인다.

중국 닻돌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례로는 충남 태안 해역에서 3점,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1점이 있다. 이 닻돌들은 길이 175cm 내외, 무게 11~13cm, 무게 100~130kg 정도이지만 이번 신창리 해역서 발견된 닻돌은 전체 길이 310cm, 중심부 폭 36cm, 중심부 무게 29cm, 무게 586kg으로 크기와 무게가 기존 닻돌에 비해 매우 크고 무겁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중국 동전도

나왔다. 발견된 동전은 경덕원보(景德元寶, 1004~1007년 주조), 희녕원보(熙寧元寶, 1068~1077년), 선화통보(宣和通寶, 1119~1125년)로 모두 북송(北宋)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경덕원보는 고려시대 제주도의 대표적 사찰인 수정사 터에서, 희녕원보는 제주 고내리 유적에서 각각 발견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제주도내 옥상과 해중에서 같은 종류의 유물이 확인된다는 것은 과거 바닷길을 통한 동아시아 국제교류 상에서 제주도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신창리 수중유적은 1983년 금제장신구가 발견되면서 처음 존재가 알려졌다.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된 정식 조사에서 중국 남송대 도자기와 상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인장 2점이 발굴됐다. 백금탁자

## 도내 학교현장 일제잔재 찾기 마무리

교육청, 옥일문 사용 교표 6개교에 교체 권장

### 일본식 교육용 용어도 정리

제주 학교 현장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찾기 위한 연구가 마무리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진양현석관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연구 용어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먼저 옥일문(旭日文)을 ‘교표’에 사용한 학교는 총 6개교로 확인돼 ‘교표 교체’가 권장됐다. 옥일문은 일본 황실의 국화 문장과 일장기가 결합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육군기, 해군기, 해군 군함기 등으로 사용됐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교직원으로 활동한 경우는 표선초 1대 교장 김면수(1855년~?), 제주고 2대 교장(사무축탁) 이재신(1881년~?), 제주고 3대 교장 서병업(1874년~?) 등 3

명이었다. 이들은 1910년 한일병합에 관계한 관리 등에게 수여되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는 등 친일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용역진은 역사의 흔적을 지우기보다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자료로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친일 작곡가나 작사가가 만든 노래를 교가로 사용하는 학교는 의귀초(이원수 작사), 한림공고(이흥렬 작곡) 등 2개교로 확인돼 ‘교과 교재’가 권장됐다. 또 교훈 중 근면, 성실, 지성 등 일본인의 가치 강조 용어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교재가 권장됐다.

이 밖에도 반장, 전체조회, 운동장 구명대, 주변·당면, 일기검사, 차뎀, 경례 등 일본식 교육용 용어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폐지 또는 교체를 권장했다. 송은범기자

2020-2021 제주도민 제천방문의 해

제천시 관광미식과 043) 641-6702 | 제천시 제주홍보사무소 064) 900-8077

# 1박2일 답답하다! 떠나자! 제천여행

제천은 코로나 사회전파가 전혀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매주 화,목,일요일 출발 (11/10부터)

내륙의 제주도, 슬로시티 제천  
국내최대의 호수 청풍호와 케이블카  
호수에 비친 단풍의 데칼코마니

제주연합패키지 299,000~ (단체버스타우어)  
가족안심패키지 399,000~ (4~6인 단독행사)

제1일 제천 제주공항-청주공항-의림지-역사박물관-호변 산책-중식(현지식)-청풍호 케이블카-청풍문화재단지-옥순대교(옥순봉)-석식(현지 특식)-숙소  
제2일 단양 조식-도담삼봉-천동굴(또는 온달동굴)-중식(단양 마늘정식)-단양강 만천하 스카이워크-약초술 담그기 체험(약초술 증정)-(제천역-청주공항역 열차 탑승)-제주공항-제주공항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박3일 및 단독행사의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굿모닝제주투어 723-3350	늘푸른여행사 726-3344	FM여행사 702-1950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파랑새여행사 744-1233	현여행갤러리 725-0818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관광지 입장료, 체험료, 차량료, 숙박비(4인 1실), 식사 3회 ●불포함내역 : 기사/가이드 팀 1만원, 호텔숙료(일부 항공편)